고래문화재단 Whale Cultural Foundation

보도자료

보도일시 | 2025년 3월 12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
레지던시 입주작가 워크숍 및 선정증서 수여식 개최

- 입주작가 소개전 <제4의 벽을 넘는다>도 함께 열려-

◯ (재)고래문화재단(이사장 서동욱 남구청장)은 3월 11일, 2025년도 레지던시 입주작가 워크숍 및 선정증서 수여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17명의 입주작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예술창작촌의 거점 공간인 장생포 아트스테이와 창작스튜디오131에서의 입소를 환영하고, 작가들 간의 네트워킹과 친목을 도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 (재)고래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시는 2018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8년째 운영되고 있다. (재)고래문화재단은 장생포 아트스테이(문학)와 창작스튜디오131(미술)의 입주 작가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며, 이를 바탕으로 참여 작가들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4년에는 문학 분야 임택수 작가의 장편소설 「김섬과 박혜람」이 제20회 세계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미술 분야 반가연 작가의 작품이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계간지 <KOREANA> 2024년 봄호의 표지 작품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 2025년도 입주작가들은 서울, 대구, 부산, 용인, 경기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작가들과, 울산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들이 선정되어 울산 남구에서의 창작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 입주작가로 선정된 이들은 ▲장생포 아트스테이(문학) 분야에서 14명이 선정되었으며, 출퇴근형 6명과 숙박형 8명이 각각 배치되었다. 선정된 작가들은 강병철(소설・시), 김민수(희곡), 김근하(소설), 김정희(시), 김이재(수필), 유덕희(소설), 은연필(소설), 이다온(수필), 이병용(시・아동청소년문학),

이영훈(수필), 이채운(소설), 이현수(소설), 정라헬(소설), 최미정(아동문학) 등이다. ▲창작스튜디오131(미술) 분야에서는 이민정(평면회화), 장영은(동양화・공예), 장우석(회화・설치) 3명이 선정되었다. 이들 작가들은 울산 남구의 문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이번 워크숍에서는 문화예술창작촌의 각 공간을 소개하고, 참여 작가들 간의 작품철학 및 앞으로의 작품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울산 장생포 및 남구 콘텐츠' 라는 김구한 교수 강연을 통해 울산 남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콘텐츠를 소개하고, 창작 활동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 한편, 3월 11일 선정증서 수여식과 함께 시작된 2025년도 입주작가 소개전 <제4의 벽을 넘는다>는 울산 남구의 문화적 특성과 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을 펼칠 문학 및 시각예술 분야 작가들의 다양한 고민과 독창적인 표현 방식으로 관람객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입주작가 소개전 <제4의 벽을 넘는다>는 3월 11일(화)을 시작으로 4월 23일(수)까지 창작스튜디오131에서 진행되며, 소설, 시, 아동문학, 회화,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17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 이번 전시는 울산 남구의 독특한 문화적 배경과 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을 펼칠 작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창작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의]

- 전시기획팀: 052-226-0017
- 접수메일: 052namguart@gmail.com
- 홈페이지: 울산광역시 남구 문화예술창작촌(www.uwcf.or.kr/namguart)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12.